

매력적인 도시조성과 주거

카시하라 시로우 (오사카대학 교수)

번역 : 이 명 권 (경운대 교수)

금번 한국주거학회의 메인 테마는 「주거공간 재구성의 과제와 전망」이라 듣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주택은 플로우에서 스톡의 시대 즉 공급보다 이미 건설된 주택을 양호하게 유지 관리하는 동시에 개수 등으로 소중하고 오래 사용해가자는 사상이 주류가 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구 자원 에너지문제, 폐기물 문제, 환경문제 등이 당연히 있으나 그와 함께 양질의 건축을 자손에게 남겨 주어야 한다는 환경윤리학의 「세대윤리학」 문제, 또한 인간의 생활환경에 있어 새로운 것과 함께 기억에 남는 옛 것이 공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이를 위해서도 주택을 어떻게 하여 재생·재구성시킬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번에 한국주거학회의 테마가 저희가 현재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되어 이에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중요한 과제를 반드시 이제부터 함께 협력하여 풀어나가기를 희망하며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저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의 테마로 말한다면 주거란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주거의 재생·재구성을 생각할 때에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떤 참고가 될 수도 있을까 하여 일본의 여러 가지 과제, 특히 스톡 활용, 재생의 사고를 몇 개 소개하고자 한다.

1. 주거란 무엇인가

인간의 집과 동물의 집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거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경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이다. 문화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의 주거조사(그림1)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대해 단순하게 서술한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주거란 풍토, 문화와의 관계이다. 한국과 일본과는 공통적인 것도 많으나 풍토, 문화가 각각 독자적인 것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주거문제는 그 나라 독자의 사고에 바탕을 두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저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일본에 있어서 제가 생각한 화제로서 한 두가지라도 무언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2. 주거와 시설의 상보성

주거공간의 계획을 생각할 경우에 우선 중요한 것은 주거와 그 이외의 건축·시설의 상보성(보완성)이다. 먼 옛 시대의 주거는 거의 모든 행위를 둘러싼 공간이었으나 현대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공간은 다양화, 복합화하여 고정적이라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림2는 지금부터 800년경 전에 경도에 살았던

카모노초메이라는 사람의 주거로 침식, 악기연주, 회화감상, 집필, 독서, 기도 등 모든 것이 사방 3m의 공간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생활행위가 더욱 더 외부화되는 경향이 현저하다. 예를 들면 그림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 1950년의 자택출산율은 95.4%이었으나 현재 거의 10%가 의료시설에서 출산하며, 50년의 자택 사망율은 89%이었으나 현재는 역전되어 75%가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 사망한다. 반대로 외부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주거에서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다. 그림4는 영화관과 TV의 보급률의 시대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종래에는 시설에 의존해 왔던 오락이 주거에서 행해지고 있다. 컴퓨터관련의 정보기기 발달로 생겨난 SOHO와 같은 집무나 생산의 일부가 주거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환언하면 표1과 같이 주공간과 시설공간에는 相補性(보완성)이 있으며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식사는 자택에서 가족이 모여 함께 먹는 것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어디에 어떻게 계획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1. 주공간과 시설공간의 보완성

주공간	← →	시설공간
침(寢)	← →	호텔
식(食)	← →	레스토랑
교(教)	← →	학교
유(癒)	← →	병원
기(祈)	← →	교회
동(働)	← →	공장·사무소
독(讀)·관(觀)	← →	도서관·미술관
주(奏)·청(聽)	← →	콘서트·홀

3. 매력적인 도시조성

지금까지 서술한 것같이 거주환경을 살기 좋고 매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택계획은 독단적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도시조성의 시야 속에서 [주택+시설]의 총체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한 매력적인 도시조성의 조건은 결론만 말하자면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시의 심볼을 가질 것, 또 하나는 서로 보완되는 다양한 공간구성 혹은 혼재성을 갖는 것이다. 심볼은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감을 높혀 마음이 가는 곳이 된다. 한편 건축의 다양성은 선택성, 유연성, 의외성을 높인다.

지금까지 일본에 있어서 뉴타운 등 계획은 주거만을 위한 지역, 지역시설을 모은 센터지역의 2개의 존으로 명확하게 나누는 방식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너무도 계획적으로 규제를 한 도시는 매력을 잃고 교외의 뉴타운은 쇠퇴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주택과 그 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시설을 혼재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여 코베시에 뉴타운을 계획하였다. 그림 5는 자연발생을 인정한 경우의 시물레이션

결과(1989년)로 이러한 컨셉트로 만들어진 결과 현재(2000년)는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거와 지역시설이 혼재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이 시뮬레이션은 계명대학교의 김한수 교수가 과거 일본의 오사카대학에 유학시 성과의 일부이다.

표 2. 매력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키워드

키 워 드	공 간	시 간
〈심볼〉 중심성, 코스모스(질서), 수목형, 레지빌리티(알기 쉬움)	센 터 코 어 랜드마크	불변성
〈심볼〉 미로성, 불측정성, 퍼지, 프랙털, 리즘(근경형), 언비규이 티(다의성), 홀로닉, 보더레스, 투월라이트존, 하이브리드 (잡종),퓨전(융합)	혼 재 복 합	신진대사 메타모르포제 (변태)

* 홀로닉(holonik) ; 생물학이나 뉴사이언스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로 이질적인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조화가 잡힌 상태 .

4. 일본에 있어서 주거에 관한 주요한 과제

현재 일본에서 주거에 관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개요는 OHP로 설명하고자 한다.

- (a) 소자·고령화의 문제(그림 7)
- (b) 배리어프리·유니버설디자인
- (c) 가족상·라이프스타일의 변화(그림 8)
- (d) 환경공생·지구환경문제(그림 9)
- (e) 스톡크활용(보전·리뉴얼)(그림 10)
- (f) 집합주택의 재축
- (g) 건축의 장수명화(그림 11)
- (h) 교외주택지(뉴타운)의 쇠퇴·재생

이러한 문제는 각각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과제와 관련되어 있음